11.23. 2020

은혜로 교회 Q.T

기도

하나님! 오늘도 좋은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4장 (새 545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

사도신경

마태복음 14장 26-32절

"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주기도문

은혜로 교회

*** 오늘의 말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순풍이 부는 것은 아니라는 귀한 영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난 순풍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만나는 폭풍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25-27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힘이 다 빠져있을 때 급하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엉뚱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풍랑을 무서워했지만(마 8:25)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33절). 이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황제들이 자신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인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 베드로의 믿음과 의심 (28-31절)**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어오신 것은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라면 물위가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세상방법으로는(배 안) 풍랑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예수님의 말씀(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물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시며 허락하십니다. '오라'는 원어 안에 '여기까지 (Right here)'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물위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와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승리)물 위를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닌 물결(환경)을 인식했을 때 물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걷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깊은 바다가 언제 다시 덮일지 모르면서 앞에 놓여진 길을 따라 긴 바다(여기까지)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딛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었을까요? 코로나의 바람(환경)으로 여러 어려움(풍랑)가운데 상황(물결)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물위를 걸어 예수님께서 오라는 곳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소서
-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게 하소서

* 은혜로 교회 공동기도 제목 *

1. 미국을 위하여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종식시켜주소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게 하소서.
환자들의 회복과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소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소서
선거 후의 미국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2. 모든 교회와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복음의 진보함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소서
토렌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 중심적 교회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소서.
뉴 노멀의 삶에 적응하게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3. 가정을 위하여

가정예배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회복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하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홀로인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그 빈자리를 채워주소서.

4. 이지영, 장미자 집사님과 심샤인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가족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가족과 집사님이 지치지 않고 잘 견디게 하소서.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소서.